

## 유다 온천

15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다 온천의 역사는 흰 여우가 발견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구치 시 중심부에 있는 유다 온천 지구의 입욕 시설에는 7 개의 원천에서 온천수가 공급됩니다. 상처나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알칼리성 연수(軟水)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매끄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텔과 대중 족욕탕, 온천 카페에서도 젊음을 가져다주는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과거 마을에 있던 절의 경내에 연못에서 발끝에 상처를 입은 흰 여우가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절의 주지 스님이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매일 같이 연못을 찾아왔고, 일주일이 지나자 발의 상처가 아물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상처가 나았다는 사실에 흥미가 생긴 마을 사람들이 연못을 확인해본 결과, 연못 물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못 바닥을 파내자 원천이 솟아나면서 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의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유다 온천은 인기 있는 온천 거리로 자리 잡으며, 지역에 부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흰 여우는 유다 온천의 대명사가 되었고, 지역 일대에서 여우를 모티브로 삼은 디자인을 간판이나 동상, 라떼 아트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온천 지구에 있는 맨홀 뚜껑에는 전설의 한 장면이 컬러로 새겨져 있습니다.

유다 온천에 있는 대부분의 숙박 시설에는 입욕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시설로는 에도 시대(1603~1867)부터 운영하며, 도쿠가와 막부 타도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던 사이고 다카모리(1828~1877) 등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이용했던 곳이 있습니다. 호텔 등의 입욕 시설은 일반적으로 투숙객 전용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투숙객 이외에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유다 온천 지구에 있는 다섯 곳의 족욕탕은 기본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천 카페 겸 안내소 '기쓰네노아시아토'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온천물에 발을 담그면서 커피나 향토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